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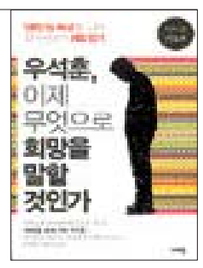
Books

역사상 가장 많이 공부하고도 태반이 '백수'

'88만원 세대' 넘어 한국사회 희망 찾기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우석훈·지승호 인터뷰



요즘 한국의 20대들은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며, 토익점수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태반이 백수다. 그들은 기성세대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놀고 있냐"고.

지난해 국내 95%의 젊은이들의 평균 임금이 88만에 그치고 있다는 '88만원 세대'를 펴낸 경제학자 우석훈씨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야 할, 그리고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에게 이제 한국사회의 희망을 이야기 해보자고 제안했다.

'88만원 세대를 넘어 한국사회의 희망찾기-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는 스스로를 '공포(?) 경제'를 이야기 하는 'C급 경제학자'라고 말하는 우씨와 '인터뷰이가 가장 신뢰한다'는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씨의 대화로 진행된다.

우씨는 한미 FTA, 시장 만능주의, 교육, 진보와 보수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자 흥분할 수 밖에 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경제학적 이론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냉정하게 말한다.

"한국의 386 세대는 정치적 결집은 강했으나 긍정적 효과를 다음 세대에 부여하지 않은 역사를 배신한 세대"라며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비판을 하는가 하면 삼성 비자금 특검과 관련해 "관전 포인트는 이건희 회장의 구속 여부이지만 구속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비판은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좌우를 막론하고 거침없다. 하지만 그도 비판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비판해줘서 고맙다는 사람은 못봤어요. 그나마 강금실 전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가 비판을 했어도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대개는 얼굴도 보기 힘들죠."(웃음) (300쪽)

오로지 '잘 살아야 한다'는 담론만 남은 한국 사회의 비극과 부조리를 통렬하게 비판한 뒤 그런 절망을 씨앗으로 삼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 희망은 결국 "나, 그리고 우리 안에 실마리가 있다"며 "국민들이 좀더 사려깊고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강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생각할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씨는 출구가 없는 막막한 시대를 살며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생각조차 현실적으로 변한 20대들의 심란한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우씨의 비판은 한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기 위한 반대를 의미한다.

한 시대의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시대의 혼란을 직시하지 못한 채 목표만 갖고 허우적대는 정신없는 현대인들이 보다 많이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짚어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석훈씨는 강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희망이 보인다고 역설한다.

'옥루몽' 1·2·3·4권

우리 말 정통 고전

'아주 재미 난 연애소설'이라 해도 고전이라면 선뜻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말'과 우리 말을 잘 살린 정통 고전이 나왔다면 어떨까.

'옥루몽'은 하늘나라에서 선관 하나와 선녀 다섯이 어우러져 놀다가 석가세존과 관음보살의 뜻에 따라 지상으로 내려와 서로 인연을 맺어가며 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언뜻 고전소설 '구운몽'(九雲夢)과 줄거리가 닮아있지만 등장인물들이 봉건적인 틀을 벗어나 근대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겨레고전문학선집' 시리즈 31~34번째인 '옥루몽'은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고전문학선집'을 근간으로 삼았다.

〈보리출판사·각 권 2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중국여성, 5천년에 걸친 눈물의 역사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프랑스여성

중국여성 루링 지음·이은미 옮김

5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전족'은 중국 여성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다. 4~5세 아이들의 발이 크지 못하도록 약 4~5년 동안 사흘마다 한번씩 발을 세게 구부려뜨려 고정시키는 고문을 반복한 이유는 오로지 남성들이 '그 기이한 작은 발'을 손안에 넣고 주무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전족'은 중국 여성들이 어떤 잔혹한 학대와 억압을 받아왔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프랑스 여성들은 오랜 기간 여권 운동의 선구자들이었고, 현재는 유행과 패션을 주도하는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어떻게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섰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을까.

중국 인민대학 교수인 궈허빙과 고등학교 교사 루링이 쓴 '프랑스 여성-우리가 바로 세상이다', '중국 여성-전족 한쌍에 눈물 두동이'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중국과 프랑스 여성들의 역사를 살펴본 책이다. 지난 1월초 출간된 '일본 여성-성과 사랑, 삶의 역사'와 함께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본 역사 3부작'으로 완간됐다.

'프랑스 여성'은 프랑스 여성의 지휘 변천사를 시작으로 여권과 정치, 가정생활과 결혼관, 금욕과 성의 개방, 남성을 뛰어 넘어 재능을 발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프랑스 여성의 파워를 이야기한다.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전사 잔다르크, 여권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르쥬 상드와 시몬느 보봐르, '연인' 등을 통해 최고의 필명을 날린 마르그리트 뒤라스, 세계 영화팬들을 사로잡았던 까트린느 드뇌브와 브리짓드 바르도까지 다양한 프랑스 여성의 삶이 소개된다.

'중국 여성'은 괭배한 남존여비 사상과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옭아매는 유교 예법, 전족으로 대표되는 신체적 학대 아래 살아온 과거 여성을 비롯, 첩과 가기(家妓), 궁녀, 기녀부터 혁명 이후 근·현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중국 여성들의 고통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준다.

저자는 "오랜 세월 고통과 억압을 견뎌오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켜낸 여성들의 삶이야말로 영웅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시그마북스·각권 값 2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프랑스여성 궈허빙 지음·고예지 옮김

새책

▲한권으로 읽는 세종대왕실록='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가 위태로웠던 성장과정을 극복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기까지 세종의 드라마틱 했던 개인사와 주변 인물들을 세종실록을 토대로 엮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천원〉

▲절대적 자유를 향한 반역의 역사=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학자 이호룡이 한국 아나키즘을 돌아봤다. 저자는 한국의 아나키즘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에서 우리 사회운동의 주요한 축이었으며 테러활동은 그들의 다양한 실천 방법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서해문집·9천500원〉

▲용서=실망과 분노는 삶을 불행하게 만들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긋나게 만든다며 마음을 행복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 중 하나로 용서를 꼽았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던 저자 앨리스 휘톤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분노를 풀고 용서에 이르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무한·9천800원〉

▲덜레스 공항을 떠나며=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한말숙의 등단 50주년 기념 자선 단편소설으로 올해 말 영어판 대표단편선집으로 출간된 예정이다. 책에 수록된 11편의 대표작을 통해 생활속의 작은 소재를 드라마틱한 전개로 이끌어가는 저자의 남다른 소설적 재능을 느껴볼 수 있다.
〈창비·9천800원〉

▲읽으면 바로 돈이 되는 신용카드 경제학=직장인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신용카를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머니투데이 기자가 소개한다. 합리적인 신용카드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재테크 수단으로서 사용법을 통해 현명한 소비습관부터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스마트 비즈니스·1만2천원〉

▲절망 사회에서 길 찾기=책이 말하는 절망사회란 진보의 분열과 이에 대한 대중의 냉대를 의미한다. 현장 노동자와 농민, 여성, 비정부 기구 활동가 등 이 땅에서 소외당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하는 진보가 가야할 길을 모색했다.
〈산지니·1만2천원〉

▲들판의 아이='20세기 검은 아프리카의 지성'으로 불리는 아마두 함파테 바의 자전적 성장소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프리카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아프리카 대 자연속에서 생명을 깨닫고 지식이란 무엇인지 그의 생애를 통해 살펴본다.
〈북스코프·1만5천원〉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문화='고지키' '겐지 모노가타리' 등 고전과 신화, '전차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그로테스크의 원형을 찾았다.
〈책세상·1만5천원〉

▲CEO의 하루경영=매일 시간에 쫓기며 월요일이 두려운 직장인들이라면 읽어볼 만하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를 비롯해 안철수 등 성공신화를 이룬 리더 16명이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성공을 이뤘는지, 그들의 시간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사·1만3천5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3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빙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응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핸 010-8004-6669
·여수-고흥 바닷가
매실밭 1300평 득량만 바닷가 인접(매실수확) 평당 5만원 (경치최고)
·고흥-농목장용지
임야 2500평 고흥경비행장 근거리 위치함 차량진입가능. 남향. 관리지역. 평당2만원
·섬고흥 득량도심
바닷가 해안변 700평 평당3만원 (낚시터. 별장지 최적)
·고흥-조선소근거리
상가부지. 시외버스터미널(옆)4차선도로변 약1200평. 평당50만원
·고흥바닷가
유자. 매실농장 3천평 대전리 해수욕장주변. 경치최고. 평당 7만원
(광주-고흥우주센터)도로 완공시 광주까지 30분거리(현공사중)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오치동	주공	17/14층	3천9백	3천1백
처평동	현대	32/6층	1억4천	1억3백
양산동	영무예다음	30/11층	1억3천	8천8백
용봉동	현대	32/8층	1억2천	8천
금호동	호남펠리스빌	34/4층	1억4천	1억8백
월계동	벽산	36/14층	1억5천	1억5백
동림동	유일가든	24/14층	4천5백	3천1백
월계동	쌍용	30/3층(저)	3천5백	2천6백
금호동	트이스빌	39/1층	2억8천	1억9천
두암동	모아파밀도	26/7층	1억3천	1억8십
두암동	미라보4차	32/10층	8천3백	5천8백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지산동 사우나	156/401	14억	6억1천
화정동 카센터	78/204	5억1천	2억8천
우산동 모텔	185/500	1십5억	5억3천
월계동	100/236	7억3천	4억1천
산안동 모텔	58/223	5억6천	3억1천
누문동	41/34	4억7천	2억8천
송정동역모텔	97/142	5억2천	2억3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용봉동(전대)	52/53	1억3천	7천3백
두암동	53/46	1억2천	6천5백
산수동	27/11	4천4백	1천6백
소태동	125/91	2억8천	1억8천
문흥동	57/31	1억5천	8천6백
오치동	70/64	1억6천	9천
두암동	62/41	1억8백	3천9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월산동 1가규	79/123	3억	2억
	용봉동 1가규	125	5억	2억8천
	일곡동 1가규	91/224	5억3천	2억3천
상가주택	오치동	77/170	4억8천	2억7천
	산안동	174/141	7억9천	3억 5천
	오치동2차	56/95	2억5백	1억1천
	일곡동	63/120	2억7천	1억3천
	지석동	65/91	1억9천	1억3천
	지산동	483/282	10억7천	4억8천
	지산동목욕탕	157/401	14억	6억2천
	문흥동	58/98	2억3천	1억4백
	삼각동	83/31	1억9천	1억6백
	두암동	18/2층	1억3백	3천7백
근린상가	매곡동 대화	49/2층	2억8천	1억2천
	월곡동 예화	136/4층	4억8천	1억7천
	월곡동 수신	26/3층	1억6천	5천6백
	동선동	13/2층	3천3백	1천4백
	진월동 현대	57/3층	1억7천	7천6백
	쌍암동	82/2층	4억6백	1억5천
	월계동 한화선	51/6층	1억7천	7천6백
오피스텔	쌍암동	15	4천8백	2천3백
	동암동	13	9천	1천8백
	쌍암동	30	9천	4천
	산수동	30	9천	5천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오선동	120/미표시	3억3천	1억1천
광산구 지죽동	480/465	11억	6억2천
북구 삼각동	320	3억6천	1억6천
나주 남평	599/339	3억2천	2억2천
담양 공장	883/386	3억1천	1억7천
나주 대지	92	4천2백	1천9백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238㎡(72평),연건평396㎡(120평)인 3층 코너 건물이 3억5천만원이다.
보증금 1억원,월203만원이 나온다.
2004년 10월완공이며, 연투자수익률11%예상된다.
임대수익용으로 적합하다.
세금문제로 인한 급매물. 실 취득가액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노래방 215㎡
보증금5,000/월150/슴15,000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룸11개,소방안전필증)
영업시간 19시간(오전11시~새벽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광주대학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 도우미 없는 청정지역
방학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대로변 1층 166㎡ 상가
보증금 1억, 월7백만원, 슴3억5천만원인 상가점포가 매물로 나왔다.(분할가능)
광주대학 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만 10만이다.
점포 뒷공간 67㎡(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안경점, 퓨전분식, 이동통신 등 수많은 예비창업자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러브콜"을 받는곳
복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상가 2층 학원 198㎡
매매가 21,500만원(응자6,500만원/사설·집기포함)
상가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놓으실때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락주십시요.
입찰물 프랜차이즈 점포개발팀 상가문의 환영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스타박스 옆)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0.3025)
▶근린시설/근린상가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북구운암6단지3층/대176건883	6억3200만	3억9백만
월계동/아파트/대340건837	5억6000만	4억1800만
동운동5층/사무실/지335건1296	1억	5천8백만
두암동/4층/단층/지325건112	2억2200만	1억5530만
일곡동/모텔/3층/지261건978	8억9000만	4억8백만
일곡동/6층/모텔/지313건1413	15억8300만	8억8800만
월계동/3층/상가/지331건1313	7억3200만	5억1260만
풍암동/5층/8층/대122건1919	23억5000만	16억5200만
두암동/모텔/8층/대406건1563	9억6400만	3억2500만

▶주택

소재지/용도/면적(㎡)	감정가	최저가
계림동/대지(181)/단층/지440건161	2억1800만	1억2100만
월산동/2층/지하/월세165건130	1억2440만	8700만
두암동/2층주택/대175건151	1억1540만	8100만
우산동/2층주택/대149건133	1억2200만	8600만
봉선동/2층주택/대137건102	8100만	4540만
산수동/단층주택/대136건83	1억2200만	8530만
두암동/2층주택/대248건182	1억5000만	1억500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장덕동/하남공단/지1568건1309	5억5898만	3억9130만
풍암지자동/대1988건1538	11억1900만	7억7900만
운암/행동공단/지1653건1385	11억	4억9400만
오선동/아파트형/전4254건232	3억3100만	1억4800만
장덕동/대1655건800	6억8200만	4억8500만
다시면/자동차공장/사/지1324건878	2억	1억4300만
나주봉황읍/목재소/대1132건330	7억	3억1100만

▶토지

소재지/지목/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나주문평면/답/4883(1507)	5730만	4012만
곡성읍/답전/1148㎡(347평)	8400만	5880만
담양읍/전/1432(433)	2578만	1450만
장성서삼면/답/4406(1333)	4406만	3085만
광산구지평동/답/1898(574)	2847만	1993만
남양주북면/답/2290(693)	3435만	2405만
화순동면/전/4556(1379)	5748만	2580만
화순춘양면/답/2488(753)	3983만	2230만
비아동/대지/1759(544)	7억3800만	5억1620만
장성북이면/답/2883(866)	3436만	1924만

▶아파트

소재지/명칭/면적 ㎡(평)	감정가	최저가
금호동/부영1차/105(32)	1억1000만	7700만
풍암동/동부/179(53)	2억9000만	2억3000만
화정동/삼익/112(34)	9000만	6300만
서동/아남/112(34)	7000만	4900만
진월동/대우/82(25)	6000만	4200만
봉선동/우등2차/105(32)	9500만	6650만
살레동/우미/79(24)	6300만	4410만
매곡동/금호/79(24)	6700만	4690만
일곡동/대림/79(24)	7600만	5320만
일곡동/한국/79(24)	7300만	5110만